

민주당으로 국힘으로... 목포시, 국비 확보 총력전

박홍률 시장, 민주당 예결위원·국민의힘 지도부 등 방문 유물 역사공간 조성·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현안 해결 분주

목포시가 시장을 필두로 국회를 찾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출신 김원익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산결산위원장, 황희·윤영덕·임종성 예산결산위원장과 면담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전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의장 내정자, 조수진 의원과 면담하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중점사업이 국회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

섰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심사, 예결특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초 최종 확정된다.

시가 국비 확보를 요청한 중점사업은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45억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58억원) ▲경동성당 종탑 원형회복(8억원) ▲소형선박용 저탄소 고효율 탄소중립 연료 실증사업 유치(16억원) 등이다.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된 지역 여학생 기숙사인 목포 정해사를 활용해 역사교육, 체험공간 등 전국적 문화교육시설이라

는 새로운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침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삼향천 범람이 우려되고 있어 도시침수 방제를 위해 국비 증액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현안 해결을 위해 연말에 배분될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는데 주요 사업은 지역현안 사업인 다목적 실내 트레이닝장 조성사업(25억원), 해안로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13억원) 등이다.

박홍률 시장은 "주요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사항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이 국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박홍률(왼쪽) 목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위원장(가운데)을 방문,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영양 가득' 완도 청정 물김 첫 출하요~



지난 4일 완도 군외면 당리리 물김 위판장에서 물김 첫 위판이 진행됐다. 11개 어가가 참여해 총 109t을 위판했으며, 가격은 한 망(120kg)에 10만원에서 13만원 선이었다. 군은 올해는 수온 및 해양 여건이 좋고 적기에 수확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완도군 제공>

목포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내일부터 1천원 택시 운영

교통약자 부담 완화... 출·퇴근시간 8개 버스노선서 승·하차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약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수송대책으로 '1천원 임차 택시' 150여대를 운영한다.

1천 원 임차 택시는 9일부터 시민 이동량이 많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4시 30분부터 7시 30분 운행된다.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이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

으며, 탑승객은 요금으로 개인당 1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시내버스 대체 수단으로 운영되는 만큼 임차 택시는 시내 주요 8개(1번, 1-A번, 6번, 9번, 13번, 15번, 20번, 60번) 버스 노선을 따라 운행된다.

이용객들도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고 하차해야 한다.

임차택시 여부는 택시 뒷면에 부착된 깃발(목포

시 비상수송 차량 1천 원 임차택시)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구역상 관내만 운행하고 호출(낭만골, 카카오) 시스템 이용은 불가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버스 파업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불편 감소를 위해 전세버스, 임차 택시 뿐 아니라 추가 방안 강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최고 여행지 '신안'

신안군, SRT 어워드 '대상' 독자 설문·전문가 평점 분석 퍼플섬·순례자의 섬 등 인기

신안군이 2022 SRT 어워드 2022년 최고의 여행지 대상을 받았다.

신안군은 지난 9월 한 달간 '2022년 최고의 여행지'를 주제로 독자(1만93명 응답)를 바탕으로 여행기자, 여행기자 등 전문가, 에디터 평점, 방문 관광객 DB 분석, 홍보자료 편의성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SRT 어워드는 SRT매거진이 여행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내 유명 관광지들 대상으로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신안군은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조심스럽게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 중 UNWTO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 12개의 작은 건축 작품이 있는 순례자의 섬, 1만7000ha의 바다정원이 펼쳐진 본재정원의 3000만 송이 야생화 등 신안군의 아름다운 명소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신안 안좌도 퍼플섬 야경. <신안군 제공>

특히 퍼플섬은 보라색 의상이나 소품을 착용하거나 보라색 옷을 입힌 애완동물과 같이 방문 시 무료입장할 수 있는 재미난 "보라 아이템"의 동참을 위한 방문객 증가 등 세계적인 보라색 성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국내 갯벌 면적 중 85%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군이 최종 선정되었고 각 섬마다의 특색을 살린 1섬 1정원, 1섬 1뮤지엄, 사계절 꽃 축제 등 미래의 문

화와 관광을 알리면 1004섬 신안을 가뵤야 한다는 말이 우연은 아닌 듯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1004섬 신안을 찾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생태환경과 섬마다의 특색을 해치지 않고 더한 정책으로 바다 위의 보석 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아름다운 신안군의 사계절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단풍 절정 두륜산에서 '국화꽃 힐링'

11~13일 해남미남축제...공룡 등 4개 테마존·국화 작품 선보여

해남미남축제가 11~13일 단풍이 절정인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해남군은 '이태원 헬리원 참사' 국가예도기간 운영에 따라 해남미남축제를 1주일 연기했다.

미남축제가 열린 두륜산은 각양각색 난대림이 터널을 이룬 십리 숲길·계곡·물이 어우러지는 빼어난 경치로 남도의 대표 가을 단풍 명소로 꼽히고 있다.

천년고찰 대흥사를 비롯한 유서 깊은 문화유적들과 두륜미포파크, 케이볼카 등이 위치한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축제장 전역에는 총 15종, 8만5000여 점의 국화 작품도 선보인다.

축제장 입구 공원에는 주라기월드 등 4개의 테마존을 조성해 공룡 조형물과 캐릭터, 동물 등을

주제로 한국화 작품이 전시된다.

높이 9m에 이르는 공룡조형물과 11m의 땅끝담 조형물 등은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밤에도 국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미남축제 기간에는 관람객들이 국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태원 헬리원 참사 여파에 각종 축하공연 등을 취소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전시·체험행사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미남축제를 차분히 개최하기로 한 만큼 국화꽃 전시 등 관람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화원 5일시장 시설 현대화 40억 투입

관광형 시장...2024년 완료

해남군이 화원 5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2024년까지 도비 24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 환경 정비와 현대화 사업을 펼친다.

화원면에 있는 5일 시장은 5·10일 개시하는 장으로 상인 50여명이 활동하며 이용 가능한 인근 주민은 1만1000여 명에 이른다.

군은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솔라시도 기업도시,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선산업 단지 개발 호재로 앞으로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지역인 만큼 주변 관광지와의 어우러진 관광형 시장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화원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각종 대형 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내 시장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새마을금고, 읍내에 아이킴터 개소



영광새마을금고는 최근 영광읍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인 'MG 드림하우스 아이킴터'를 개소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MG 드림하우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시설로 교육 및 문화 불균형을 해소해 목표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영광새마을금고가 협업해 마련했다.

이번 MG 드림하우스 사업 내용으로는 약 2200만원 상당의 아동청소년 주거시설 리모델링(친환경 벽지, 장판, 보일러 등)비용 외에도 교육에 필

요한 태블릿, 생활용품 등을 '아이킴터'에 지원하고, 향후 금융 및 환경교육을 주제로 한 '드림하우스 금융 캠프' 운영 및 생활용품, 필기구, 식료품 등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영광새마을금고 박주경 이사장은 "주요 장·노년층 위주의 사회공헌 사업에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암군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모집

영암군이 지역 거주 외국인주민들을 통해 외국인 정책을 검증하고 제안을 받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영암군은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책제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20명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군은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네트워크와 군정 참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수당, 워크숍, 법률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주민은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인구조정년정책과 이주민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영암=전봉환 기자 jbh@kwangju.co.kr